



‘칠레 해안지역 가장 우수한 와이너리 선정’

레이다 코스탈 빈야드 카넬로 시라

Leyda Single Vineyard Canelo Syrah

지역	칠레 > 산 안토니오 > 레이다 밸리		
포도품종	시라 100%		
알코올	14.5%	용량	750ml
등급	D.O. Valle de Leyda	시음 적정 온도	13~15℃
테이스팅 노트	바이올렛 빛깔을 지닌 짙은 루비 컬러이며, 검은 과일 풍미와 함께 백후추, 월계수 잎, 제비꽃 향 등 후각적인 풍미와 매우 신선한 과일 그리고 프렌치 오크 숙성에서 기인한 바닐라, 초콜릿 등의 복합적인 풍미가 매력적인 와인이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치즈		



제품설명



싱글빈야드 레인지는 레이다 밸리의 페루아를 대표하는 와인으로 엄선된 구획의 단일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하여 각각의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보다 우아하고 복합미가 뛰어난 와인으로 탄생된다.

4월 2째 주 손 수확 진행 (상대적으로 매우 늦은 수확 시기)하여 전체의 15%는 포도송이 깨 압착을 진행한다. 약 4~5일 간 8~10℃ 사이로 조절된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에서 저온 침용 작업 진행 후 225L 바리크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하여 약 14개월 간 추가 숙성 후 병입을 진행한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팀 아킨 Tim Atkins 92점
2022빈티지 데스콜차도스 Descorchados 92점
2020빈티지 팀 아킨 Tim Atkins 92점

와이너리



1998년 "레이다 밸리"에 설립된 레이다 와이너리는 오늘날 현대 칠레와인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매우 건조한 레이다 밸리는 포도를 재배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이 지역의 잠재된 가능성을 확신한 레이다 와이너리는 마이포강으로부터 8km에 이르는 수송관을 건설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이 지역 최초의 포도원을 조성하며, 새로운 프리미엄 재배지를 개척했다. 레이다 와이너리의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아 2002년 5월 드디어 칠레 정부에서는 와이너리 이름을 넣어 '레이다 밸리'라는 D.O.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오늘날 서늘한 기후(Cool Climate)의 특급 프리미엄 와인을 대표하는 산지로 칠레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피노 누아 및 화이트 와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이다 와이너리는 세계적인 주류 전문지 'Drink International'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50대 와이너리'에 2013년, 2014년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세계무대에서도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